2023 GMI 세계선교대회 광고 D-57

"여기, 섬기실 자리 있어요!"

공개 모집

선교대회 기간
9.18(MON)-21(THUR), 2023

주제
"중단할 수 없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젼을 이루자" (마24:14)

문의
은혜한인교회 선교부
GKCGMIUSA@GMAIL.COM

함께하는 기도
- GMI 선교사들이 다 모여 화합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 세계선교 마무리 비젼을 심어주는 선교대회가 되도록

총무팀
상황실, 개막식, KITCHEN & REFRESHMENT, DECO, 집회 순서 및 진행, 휴게실,

총무/관리팀
식당, REFRESH, 등록, 선교부스, 먹거리 부스, 상황실, 의료선교, 셋업, PALANCA(선물), 무료나눔 행사, MK프로그램(EM팀), 선교사 케어, 주차봉사, 가든 조명

등록/민박/호텔 팀
등록, 호텔, 민박, 안내데스크, 공항마중, 관광 가이드/도우미, WELCOME PACKAGE

KITCHEN & REFRESHMENT 팀
주방봉사, REFRESHMENT 간식, 먹거리 장터

사진/DECO 팀
참가자 개인 사진 촬영, 배경, 친교실, 본당

MEDIA/DESIGN 팀
역사자료 정리, 비디오, 사진 촬영, 웹사이트, 번역, 글편집, 뉴스레터

차량팀
공항 영접 짐 관리, 이동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07.23.2023

2023년 7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0개국 327명 (자체 파송 76%)

GRACE 선교소식

2023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3년 은혜한인교회는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1세대를 통해 받은 세계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다음세대로 이어져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 이루어 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7월 선교일정

▷은혜동산 TD 15기 & 지방교회 방문 (7/22-7/31)

7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은혜동산 TD 15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케냐

- 황광식 원지혜 선교사

참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느새 6월도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네요. 케냐는 계절이 겨울로 바뀌고 또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꽤나 춥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위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요즘 케냐에는 "샤카홀라" 지역의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며 죽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스로 굶어 죽은 사람만 이미 500명이 넘으며 그 중에 상당수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또한 살아서 구조된 사람들은 병원에 실려가서도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케냐 정부에서는 각 교단이나 목사들의 소속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GMI 교회들과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깨어서 진리를 바르게 전해야 하기에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이러한 때에 끊이지 않는 말라리아로 수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한가지 감사한 일은 지난 6월 3일 제14회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42명의 학생들이 평생 처음으로 학사모를 썼습니다.

2년간 학교를 다니며 매학기, 매 세션을 겨우 겨우 차비만 마련하여 오기도 하고 시골에서 농사 지은 옥수수를 팔아 한 학기를 겨우 마치고 또 아픈 몸으로 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졸업생들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각자의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있을 수 많은 고난에도 능히 이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인도 1

- 한OO 손OO 선교사

현재 인도는 힌두 근본주의가 점점 기독교를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종교개종법이 통과되려는 것은 막고자 많은 이들이 반대 시위를 가졌습니다. 이 땅에 진정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매주 방과후 학교를 찾아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 이 소중한 아이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감사한 소식은 한 현지 사역자가 아이들에게 마음을 품고 이 사역에 협력하겠다고 작정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도 지원하는데 사역과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도 2

- 강OO 이OO 선교사

각 지역에서 온 25명의 6기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핍박이 심한 유피주에서 온 학생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랜 기도제목이었던 유피주와 펀잡주에 현재 4곳의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신학생, 사역자, 유피 주, 차티스가르 주에 건축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말씀을 전하거나 집회를 하다가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던 회계사도 이미 저희들의 신분이 노출되었고 도청되고 있다며 저희와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희의 안전과 이곳 선교체제의 전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 김운용 남영미 선교사

여섯 개의 부족 언어 성경번역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2명의 현지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부족들의 언어와 문법을 공부하였고 이제 자신들의 부족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숨겨진 부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영미 선교사의 신장, 폐, 간의 정기검진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번역 사역과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아공

- 이은원 최정미 선교사

할렐루야! 이곳 남아공은 현재 겨울이고 저희가 있는 이곳은 해발 1,400M로 아침과 새벽에 얼음이 어는 추운 날씨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주민들은 영하의 추위에도 구멍이 숭숭난 양철판으로 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계획된 구호사역을 통해 약 60가정에 생활 필수품들을 되는대로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역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과부와 어린 아이 그리고 고령의 할머니들은 몇일 동안 굶고 있었는데 음식을 들고 나타난 저희를 그저 하염없는 눈물로 맞이합니다.

이 땅의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저희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1분단상 118-7월호(재기고)>

-김대규 장로

요즈음 교회들의 심각한 고민 중의 하나는 제직이 제도화되고 그에 따라 그것이 지위나 권위로 나타나는 오류의 현상인 것이다. 제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름도 없는 종의 자리이다.

더욱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제사장직(히에라튜마 = priesthood: 제사장직)의 임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떠한 계급도 없고 누구나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임을 강조하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기독교 교리를 보더라도 오늘의 제직들의 자세는 너무나 넌센스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맡은 자"는 제직을 넘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포함한 말이며 특히 제직들이 깨우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초점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의 분규가 있어서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오직 그리 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되어 주만을 섬기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내려 준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써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다(고전4:1,2).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하는 실 천적인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일꾼의 신분은 색다르다. 그저 주의 일을 맡아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이 때의 일꾼은 "huperetes"(휘페레테스)인데 로마시대때 전투함인 갤리선의 밑층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한다. 승리를 위해 전장의 장군이 명령하는대로 노를 젖는 것에만 집중하는 순종만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이런 것이다. 이는 사도바울의 자신을 비유한 말이기도 하다, 순종과 헌신의 총체인 충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의 모습은 진정 이러한 모습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름도 없이 주의 영광만을 위해 오직 순종,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복음을 모든 자에게 전하여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인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우리는 "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이 바로 충성인 것이다.

이 때 맡은 자는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만에 집중하는 자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예속된 자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므로 거짓없는 신실한 충성과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거짓없는 신실함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를, 희생과 섬김보다는 지위나 권위를 추구하고 내세웠던 것은 아닌지를 셈하여 보아야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는 모두가 되어 지기를 간절하게 소망을 한다.

존 이끄는 은 충성의 예화를 소개한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할 때 코자크족에게 포위되어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자 프랑스 군대는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량들은 끊기고 퇴로는 막혔는데 한겨울 눈보라는 몰아치고 강물은 얼어붙기 시작하였다.

나폴레옹은 물길이 얕은 쪽을 골라 선발된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가 교각의 다리처럼 가교를 붙들고 서 있게 하여 다리를 완성시켜 병사들을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마지막 병사가 가교를 건너가자 물속에서 가교를 붙들고 있던 병사들을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다. 가교를 붙든 채 모두가 얼어 죽은 것이었다. 이것이 신실한 충성의 한 예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우리도 신실한 충성된 섬김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져 삶으로 주를 나타내며,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와 이 땅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충만케 되도록 매진하는 헌신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